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34> 환(幻)인 줄 알면 환을 떠나니

근본무명이 어느 때 비롯되었는지 중생은 그 시초를 알 길이 없으므로 '본래부터' '맨 처음'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무명은 일어나는 곳도 없고 그 실상 자체도 없는 것이므로 무명은 환(幻), 허깨비, 꼭두각시, 눈꽃이나 허공의 꽃과 같다.

눈앞에서 헛것이 어른거리는 '눈꽃'이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허공의 꽃'과 같은 환(幻)은 실체가 없는 허깨비요 꼭두각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환같은 무명에서 벌어지는 온갖 연기법이다. 그러므로 이 연기법 또한 하나하나가 모두 환과 같고 허깨비와 같다. 이 사실을 바로 알면 그 자리가 깨달음이다. <선가귀감> 34장에서는 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知幻卽離 不作方便 離幻卽覺 亦無漸次.

환(幻)인 줄 알면 환을 여의니
방편 쓸 일이 없을 것이요
환 떠난 그 자리가 깨달음이라
점차 닦을 깨달음도 없어지리라.

'환인 줄 알면 환을 여의니'의 뜻은, 연기법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실체가 환인 줄 알았다면, 더 이상 이것에 집착하여 중생의 꼭두각시놀음에 놀아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환을 여읜 이 자리가 깨달음이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집착하여 닦을 깨달음도 없는 것이다.

중생은 허깨비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허망한 경계를 멀리 벗어나야 한다. 허망한 경계를 멀리 벗어나려는 마음을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환같은 그 마음'도 다시 멀리 벗어나야 한다.

'환(幻) 같은 그 마음'을 멀리 벗어나려는 것도 환(幻)이 되니, 여기에서도 다시 멀리 벗어나야 한다. 멀리 벗어나려는 환을 벗어나고 또 벗어나서 더 벗어날 바 없는 곳을 얻게 되면 곧 모든 환이 없어진다.

불을 지필 때 나무를 서로 비벼 생긴 불이 그 불을 일으킨 나무를 태워 재와 연기로 허공에 사라지듯, 환으로써 환을 닦는 이치도 이와 같아서 마침내 모든 환이 사라진다.

모든 환이 사라지더라도 단멸(斷滅)에 들어가지 않고, 본디 있던 영원히 변치 않을 참마음만 남는다. 환인 줄 알고 환을 떠나니 방편 쓸 일이 없을 것이요, 환 떠난 그 자리가 깨달음이니 점차 닦을 깨달음도 없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心爲幻師也 身爲幻城也 世界 幻衣也 名相은 幻食也 至於起心動念 言妄言眞 無非幻也. 又 無始幻無明 皆從覺心生 幻幻如空華 幻滅名不動 故夢瘡求醫者 寤來無方便 知幻者亦如是.

마음은 꼭두각시를 만드는 요술쟁이다. 몸은 꼭두각시가 사는 마을이고, 세계는 꼭두각시가 입는 옷이며, 이름과 형상은 꼭두각시가 먹는 음식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내는 것이나, 거짓이다 참이다 말하는 것들이 다 꼭두각시 아닌 것이 없다. 그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꼭두각시 무명은 다 '여여한 마음'인 각심(覺心)에서 나온다. 꼭두각시 하나하나가 다 허공의 꽃과 같지만, 꼭두각시가 없는 깨달음은 '번뇌로써 흔들림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꿈에 부스럼이 나서 의사를 찾던 사람이 잠이 깨면 병을 고칠 필요가 없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이 꼭두각시인 줄 알면 꼭두각시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꼭두각시는 남의 조종을 받아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으니, 실체가 없는 허깨비와도 같다. 이 꼭두각시를 다양하게 만들어 조정하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다. 중생의 몸은 중생의 마음이 만들어낸 온갖 꼭두각시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비유할 수 있다. 이 세상 속에서 중생들이 사니, 이 세계는 꼭두각시들이 입고 사는 옷이나 다름없다. 이 중생들은 이름이나 형상에 집착하고 분별하며 사니, 이름과 형상은 꼭두각시가 먹고 사는 음식이나 마찬가지이다.

알고 보면 중생들이 시비 분별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내는 것들이 다 꼭두각시 아닌 것들이 없다. 참이다 거짓이다 말하는 것들도 다 중생들이 분별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 이 또한 꼭두각시들이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원초적인 원인은 무명에 있다. 그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무명도 알고 보면 여여한 마음인 각심(覺心)에서 홀연 생겨난 것이다. 무명에서 시작되는 십이연기법 하나하나가 다 꼭두각시이고 허공의 꽃인 것이다. 이런 꼭두각시의 실체를 알아 그 공성(空性)을 보면 참마음이 드러나니, 우리는 그곳을 '번뇌에 흔들림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 꿈에 부스럼이 나서 의사를 찾던 사람이 잠에서 깨면 아픈 곳이 없어 병을 고칠 필요가 없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이 꼭두각시인 줄 알면 중생의 병이 없어진 셈이므로, 병을 고칠 수행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萬里浮雲消散盡 一輪明月在寒空

하늘 가득 떠다니던 먹장구름 흩어지니
밝은 달이 두리둥실 저 허공에 떠 있도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pia.com/community/wonsun

십이연기법이 다 허공의 꽃

실체 알아 공성 보면 참마음 드러나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적멸보궁(寂滅寶宮)

양산 통도사 대웅전에는 불상이 없지요? 석가모니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사리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멸보궁이라 부릅니다. 부처님의 분신과 다름없는 사리를 모시고 있지요. 그렇기에 전(殿)이나 각(閣)보다 상위개념인 궁(宮)이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궁에서 한층 올려 보궁(寶宮)이란 이름을 붙였지요.

보궁의 기원은 석가모니부처님이 깨달은 이후, 최초의 적멸도량회를 열었던 마가다국 가야성 남쪽 보리수 아래의 금강좌에서 비롯됩니다. 적멸(寂滅)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릅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화엄경>을 설법하기 위한 해인삼매에 들어갔지요.

원래 적멸보궁은 언덕 모양의 계단을 쌓고, 불사리를 봉안한 양식이었지요. 이후 불상이 조성되면서도 그 경외와 숭배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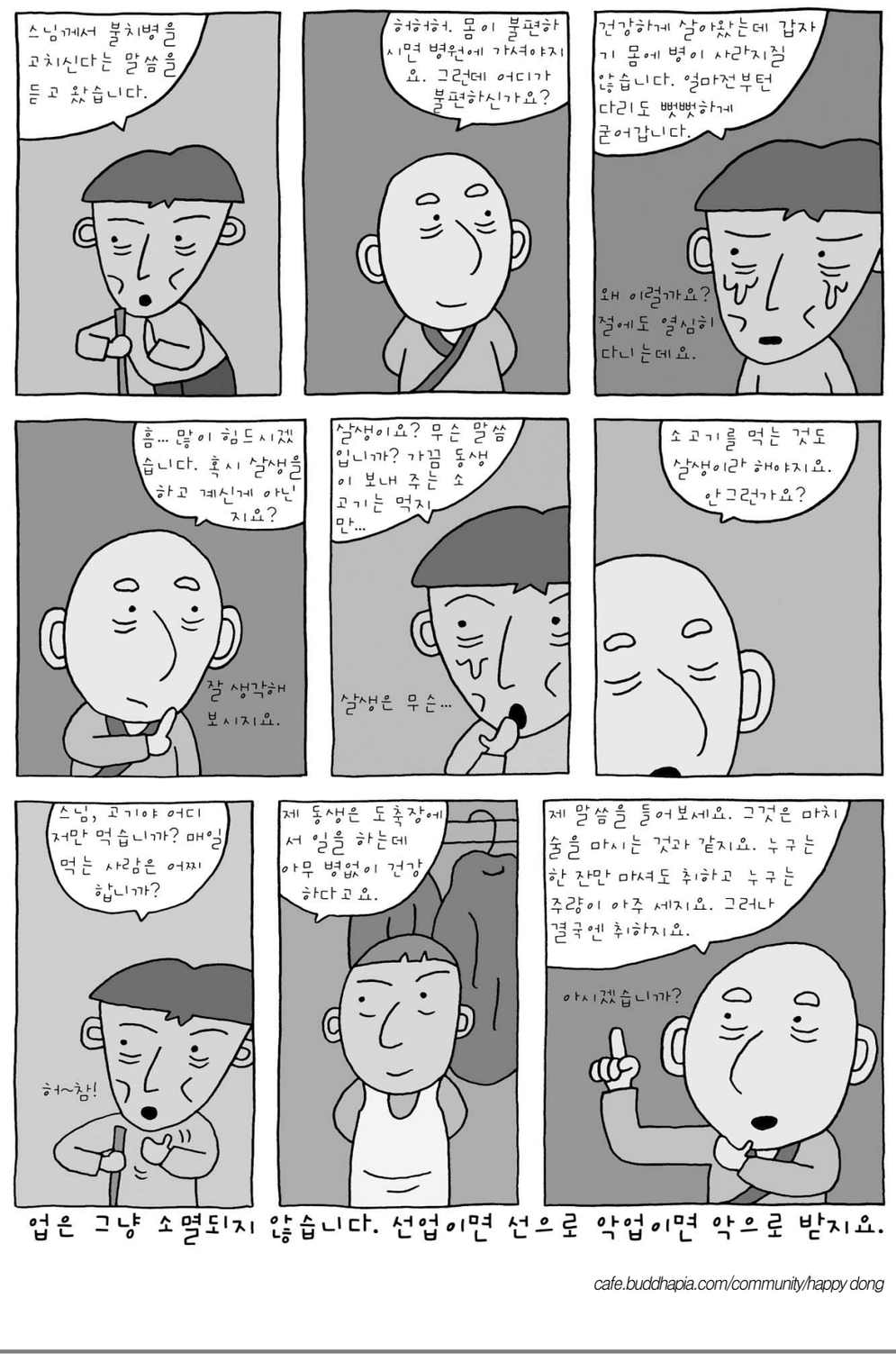
우리나라 적멸보궁은 편의상 진신사리 예배장소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천의 계단에서 참배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는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님 사리와 정골을 나눠서 봉안한 5대 적멸보궁이 유명해 신도들이 자주 참배합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행복동 사람들

육식을 좋아해요

배종훈 (bjh4372@hanmail.net)



cafe.buddhapia.com/community/happy dong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109)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55강 제9장 일상무상분(一相無相分)

오늘은 9장을 읽기로 한다. 저번 시간에 인상 번역(?)을 질러놓고선, 뻗어가는 해석의 갈래를 수습하느라 애를 먹었다. 오늘은 층위별 번역을 다 놓고 길을 가보기로 한다.

(원문)

須菩提, 於意云何. 須陀洹能作是念, 我得須陀洹果不. 須菩提言, 不也世尊. 何以故. 須陀洹名爲入流, 而無所入. 不入色聲香味觸法, 是名須陀洹. 須菩提, 於意云何. 斯陀含能作是念, 我得斯陀含果不. 須菩提言, 不也世尊. 何以故, 斯陀含名 一往來, 而實無往來, 是名斯陀含. 須菩提, 於意云何. 阿那含能作是念, 我得阿那含果不. 須菩提言, 不也世尊. 何以故. 阿那含名爲不來, 而實無不來, 是故名阿那含. 須菩提, 於意云何, 阿羅漢能作是念, 我得阿羅漢道不. 須菩提言, 不也世尊. 何以故. 實無有法名阿羅漢. 世尊, 若阿羅漢作是念, 我得阿羅漢道, 卽爲着我人衆生壽者. 世尊, 佛說我得無諍三昧, 人中最爲第一, 是第一離欲阿羅漢, 世尊, 我不作是念, 我是離欲阿羅漢, 世尊, 我若作是念, 我得阿羅漢道, 世尊卽不說, 須菩提是樂阿蘭那行者. 以須菩提, 實無所行, 而名 須菩提是樂阿蘭那行.

(현토)

"須菩提, 於意云何오. 須陀洹이 能作是念호대 我得須陀洹果不아."

須菩提ㅣ言하사대, "不也니이다, 世尊하. 何以故오. 須陀洹은 名爲入流호대, 而無所入不入色聲香味觸法일새, 是名須陀洹이니이다."

"須菩提아, 於意云何오. 斯陀含이 能作是念호대, 我得斯陀含果不아."

須菩提ㅣ言하사대, "不也니이다 世尊아, 何以故오. 斯陀含은 名一往來호대, 實無往來일새, 是名斯陀含이니이다."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阿那含이 能作是念호대, 我得阿那含果不아."

須菩提ㅣ言하사대, "不也니이다 世尊하. 何以故오. 阿那含은 名爲不來로대, 而實無不來일새, 是故로 名阿那含이니이다."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阿羅漢이 能作是念호대, 我得阿羅漢道不아."

須菩提ㅣ言하사대, "不也니이다, 世尊하. 何以故오. 實無有法名阿羅漢이니, 世尊하, 若阿羅漢이 作是念호대, 我得阿羅漢道라하면, 卽爲着我人衆生壽者니이다. 世尊하, 不說我得無諍三昧人中에 最爲第一이라, 是第一離欲阿羅漢이라하시나, 我不作是念호대, 我是離欲阿羅漢이라하노이다. 世尊하, 我若作是念호대, 我得阿羅漢道라하면, 世尊이 卽不說須菩提ㅣ 是樂阿蘭那行者라하시련만. 須菩提ㅣ 實無所行일새, 而名須菩提ㅣ 是樂阿蘭那行이라 하시나니다."

(언해)

"수보리야! 뜻에 어떠뇨? 수다항이 능히 이 념(念)을 하되, '내 수다항과(果)를 득하노라' 하느냐 아니냐?"

수보리가 사뢰되, "아니이다, 세존하! 어찌어뇨? 실로 '법 있음 없음'이 이름이 아라한이니, 세존하! 만약 아라한이 이 념을 하되, '내 아라한도를 득하노라' 하면, 곧 아(我) 인(人) 중생(衆生) 수자(壽者)에 착(着)함이니이다. 세존하! 부처께서 나를 무쟁삼매(無諍三昧)를 득하여 인중(人中)에 맛(*가장) 제일이라 하시나니, 이 제일 욕(欲) 여읜 아라한이니, 세존하! 내 이 념을 하되, '내 아라한도(道)를 득하노라' 하느냐 아니냐?"

수보리가 사뢰되, "아니이다, 세존하! 어찌어뇨? 실로 '법 있음 없음'이 이름이 아라한이니, 세존하! 만약 아라한이 이 념을 하되, '내 아라한도를 득하노라' 하면, 곧 아(我) 인(人) 중생(衆生) 수자(壽者)에 착(着)함이니이다. 세존하! 부처께서 나를 무쟁삼매(無諍三昧)를 득하여 인중(人中)에 맛(*가장) 제일이라 하시나니, 이 제일 욕(欲) 여읜 아라한이니, 세존하! 내 이 념을 하되, '내 아라한도(道)를 득하노라' 하느냐 아니냐?"

수보리가 사뢰되, "아니이다, 세존하! 어찌어뇨? 수다원이 능히 이 념을 하되, '내 수다원과를 득하노라' 하느냐 아니냐?"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고요. 수다원은 '(성스런) 흐름에 들어섰음'을 가리키지만, 실제 들어선 경지란 없기 때문입니다. 형태나 소리, 냄새, 미각, 터치나 의식 등 어떤 형태로도 확인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그걸 전제로, '수다원'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냐. 수다원이 그런 생각을 할까. '나는 수다원의 경지를 얻었다'고…."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고요. 수다원은 '(성스런) 흐름에 들어섰음'을 가리키지만, 실제 들어선 경지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걸 전제로, '수다원'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냐. 사다함이 능히 이 념을 하되, '내 사다함과(果)를 득하노라' 하느냐 아니냐?"

수보리가 사뢰되, "아니이다, 세존하! 어찌어뇨? 수다함을 이름이 '한번 가며 옴'이로되, 실로 가며 옴이 없을새, 이 이름이 사다함이니이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뇨? 아나함이 능히 이 念을 하되, '내 아나함과를 득하노라' 하느냐 아니냐?"

수보리가 사뢰되, "아니이다, 세존하! 어찌어뇨? 아나함을 이름이, '오지 아니함'이로되, 실로 오지 아니함 없을새, 이럴새 이름이 아나함이니이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뇨? 아라한이 능히 이 念을 하되, '내 이 욕 여읜 아라한이로라' 아니하노이다. 세존하! 내 만약 이 념을 하되, '내 아라한도(道)를 득하노라' 하면, 세존이 곧 '수보리가 이 아란나행(行)을 즐기나니라' 이르지 아니하시려늘, 수보리가 실로 행한 곳 없을새, 수보리를 이름하시되, '이 아란나행을 즐기나니라' 하시나이다."

(번역)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냐. 수다원이 그런 생각을 할까. '나는 수다원의 경지를 얻었다'고…."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고요. 수다원은 '(성스런) 흐름에 들어섰음'을 가리키지만, 실제 들어선 경지란 없기 때문입니다. 형태나 소리, 냄새, 미각, 터치나 의식 등 어떤 형태로도 확인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그걸 전제로, '수다원'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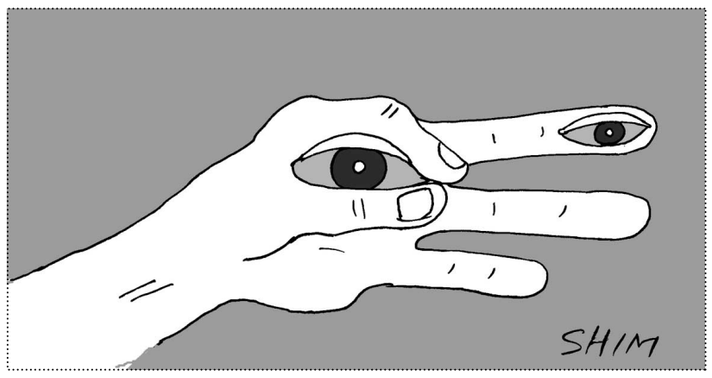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냐. 아나함이 그런 생각을 할까. '나는 아나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고요. 아나함은 '(다시는 여기) 오지 않을 것임'을 가리키지만, 실제 오지 않거나 하는 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걸 전제로, '아나함'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냐. 아라한이 그런 생각을 할까.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고요. 아라한이라 꼭집어 내세울 만한 무슨 경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즉 '나는 아라한의 경지(道)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아와 세계의 이런저런 덫에 걸린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붓다께서는 제가 무쟁삼매(無諍三昧), 즉 더 이상의 쟁투와 소모가 없는 평정을 얻었다 하고… 그런 점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삶의 불순물을 완전히 떨군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스스로 그것을 자랑삼아 떠올리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한 평정에 이른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진정 아란나의 실천을 즐기는 자'라는 말씀을 유보하셨을 것입니다. 제게는 제 삶에 이름표를 붙일 그 무엇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전제로, '수보리는 아란나의 실천을 즐기는 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 현토, 언해, 그리고 번역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